



윌리엄스 감독

# 위기 KIA 마운드 난세의 영웅 기다리는 수 밖에 ...



위기의 KIA 타이거즈가 '난세의 영웅'을 기다리고 있다.

KIA는 10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후반기 첫 경기에 나섰다. 기다렸던 리그 재개지만 시작부터 대형 약재를 만났다.

7월 전승 행진을 이끌었던 '에이스' 브룩스가 장본인이다. 그는 해외에서 주문한 전자담배에서 대마초 성분이 검출돼 구단으로부터 퇴출당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광장이 안타깝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남은 게임이 많고, 싸워야 하는 날들이 많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여러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 '에이스' 브룩스 퇴출 속 다음 주 8연전 강행군 '산 넘어 산' 윌리엄스 감독 "남은 게임 많고 싸워야 할 날들 많아" 대체 외국인 선수 영입 해도 9월 중순에나 등판 가능할 듯

화전 일정을 책임진다.

13일부터 시작되는 SSG와의 원정경기는 맹연으로 연다. 그리고 올림픽 강행군을 마치고 돌아온 이의리가 14일 후반기 첫 등판에 나선다. 이어 다시 임기영이 마운드에 오른다.

이번 주는 그럭저럭 마운드를 꾸려나간다고 해도 다음 주가 걱정이다. 전반기에 취소됐던 키움과의 경기가 오는 23일 월요일 경기로 편성되면서 8연전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윌리엄스 감독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하기는 했지만 당장 묘수를 내기는 어렵다.

대체 외국인 선수쪽으로 눈을 돌리더라도 실제 영입에는 시간 제약이 있다.

영입 대상 선수의 소속팀과도 협상이 진행돼야 하고 비자와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문제도 있다. 당장 계약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비자 발급, 자가격리 후 몸 만들기 등을 생각하면 8월이 훌쩍 넘어간다.

9월 중순에 투입된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새 외국인 투수를 가동할 수 있는 경기가 많지 않다.

트레이드도 말처럼 쉽지는 않다. 선발 자원을 받아오기 위해서는 KIA도 그만큼

특별한 카드를 내밀어야 한다. '빅딜'을 성사시킬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고 선발뿐 아니라 곳곳이 빈틈이다.

일단은 기존 선발 후보들의 '반전'을 기대해야 한다.

KIA는 맹연-브룩스가 부상으로 등판 이탈했던 지난 6월 김우진, 이민우, 차명진, 윤중현 등을 선발로 투입하면서 어렵게 살림을 꾸려갔다. 팀의 위기 상황에서 경험을 얻었던 이들이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위기의 마운드를 지탱해줘야 한다.

브룩스 이탈과 함께 또 하나 아쉬운 부분은 휴식

기 동안 기대했던 불펜진 강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박준표가 1군 합류 타이밍이 가장 빠를 것이다. 한번 피정을 했고 오늘 퓨처스 게임에도 들어간다"며 "전상현은 사타구니 통증이 있다. 확실히 부상에서 회복하는게 중요하다. 하준영은 어깨 미세 통증이 있어서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다행히 검사했을 때는 특별한 이상이 나오지 않았다. 이 선수들이 완전히 회복한 뒤에 1군에 복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리그 조기 중단으로 7월 상승세를 잊지 못하고 아쉬운 휴식을 맞았던 KIA는 전력 누수 속 후반기를 시작하게 됐다.

팀의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기회다. KIA가 기회를 잡을 '난세의 영웅'을 애대게 기다리고 있다.

한편 KIA는 내야수 김석환과 투수 장지수에 이어 이날 '예비역' 한승혁·유승철·강이준(이상 투수)과 신범수(포수)를 정식 선수로 등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메시, PSG 계약서 검토 중 맨유 영입전 가세

FC바르셀로나와 21년의 동행을 마친 리오넬 메시(34·아르헨티나)의 차기 행선지로 파리생제르맹(PSG·프랑스)이 거론되는 가운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잉글랜드)가 영입을 노린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영국 더선 등은 9일(현지시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메시 영입에 관심을 보인다. 2년 계약에 주급 57만파운드(약 9억 587만원)를 제시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올해 6월 바르셀로나와 계약이 만료된 메시는 구단과 재계약을 추진해 왔으나,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라리가)의 재정 규정에 발목이 잡혀 불발됐다.

라리가는 구단의 총수입과 비교해 선수단의 인건비 지출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비율형 샐러리캡' 제도를 시행하는데,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재정난에 시달리는 바르셀로나는 고액연봉자인 메시를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메시가 연봉 50% 삭감에 동의했으나 구단은 결국 이달 5일 재계약 포기를 선언했고, 메시는 8일 눈물의 기자회견을 통해 작별 인사를 남겼다.

유스팀 시절인 2000년 12월부터 바르셀로나에 서만 뛰어난 그는 21년 만에 팀을 떠나게 됐다.

자유계약선수(FA) 신분이 된 메시의 영입을 원하지 않는 팀은 없을 터다. 잉글랜드의 맨체스터 시티와 토트넘 홋스퍼 등도 그를 노린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 구단이 영입을 시도할지는 미지수다.

맨유도 이번 여름 이적시장에서 제이든 산초와 라파엘 바란 등을 영입하는 데 1억 파운드(약 1589억3000만원) 이상의 큰돈을 쓴 상태다.

여전히 가장 유력한 행선지는 PSG로 꼽힌다.

PSG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메시 영입이 가능하다. 구단이 작업을 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최대한 빨리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메시

프랑스는 메시의 PSG 합류 가능성에 잔뜩 들뜬 상태지만, 메시는 PSG의 러브콜에 아직 확답을 주지 않았다.

메시가 현지시간으로 9일 파리 인근 르부르제 공항으로 입국할 수 있다는 소문에 현지 팬들은 공황과 PSG 홈구장인 파크 데 프랑스로 모여들었는데, 스페인 언론에 따르면 그는 아직 스페인에 머물고 있다.

스페인 마르카는 "파리 시민들이 메시의 입성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만, 메시는 스페인에 있는 집에서 조용히 새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초상권 등이 주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고별 기자회견에서도 메시는 PSG행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바르셀로나 팬들은 메시와의 이별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바르셀로나의 한 회원(member)이 메시의 PSG행을 막기 위해 프랑스 법원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고소장을 냈다"고 보도했다.

PSG가 메시를 품으면 선수 영입 시 수입보다 많은 돈을 쓰지 못 하게 하는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규정을 위반한다는 주장이다. /연합뉴스

## 승점 절실한 광주FC, 오늘 전복 원정길

광주FC가 절실함으로 전복 원정길에 나선다. 광주는 11일 오후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북현대와 K리그1 2021 21라운드 순연 경기를 벌인다.

위기 상황에서 벌이는 절박한 승부다. 광주는 지난 8일 FC서울과의 원정경기에서 0-1패를 기록했다.

전반 8분 지동원에게 K리그 복귀골을 내준 뒤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서울의 골대를 열지 못했다.

다시 최하위로 떨어진 광주는 부상자까지 속출한 상황에서 3일 만에 다시 그라운드에 올라야 한다.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미뤄졌던 21라운드 경기가 준비됐다.

광주가 만나게 되는 전복은 '디펜딩 챔피언'이자 일류첸코, 문선민, 송민규, 김민혁, 송범근 등 최강의 스퀴드를 자랑하는 '스타군단'이다.

전복은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참가와 코로나19 감염 여파로 후유증을 겪기도 했지만 지난 라운드 대구와의 홈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두며 흐름을 살렸다.

어려운 상대를 만났지만, 광주는 물러설 곳이 없다.

광주는 올 시즌 5승 4무 13패로 승점 19점을 확보하는 데 그치고 있다. 앞선 맞대결 결과 서울이 승점 24로 10위가 됐고, 성남FC가 22점으로 11

위다. 두 팀 모두 광주보다 한 경기씩 덜 지했다. 성남과 더 멀어지면 안 되는 만큼 광주는 이번 경기에서 무조건 승점을 보아야 한다.

어려운 상대지만 광주는 물러서지 않는 승부로 강팀들의 압박해왔다.

광주는 장점인 끈끈한 조직력과 광주 유스 출신 허율과 엄지성의 패기로 대어 사냥에 나선다.

193cm의 장신인 허율은 큰 키를 활용한 강력한 헤더로 제공권 싸움에 힘을 보태주고 있다. 또 동료와의 연계플레이를 통해 공격의 새 전력이 됐다.

엄지성은 빠른 스피드와 저돌적인 돌파, 정확한 크로스로 광주의 '셋백'이 됐다. 올 시즌 22경기 전 경기에 나서 2골을 기록하는 등 광주의 미래로 성장하고 있다.

공수에서 헌신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는 헤이스도 전복을 공략할 특급 무기다.

헤이스는 세트피스로만 4도움을 기록하는 등 날카로운 발목을 과시하고 있고, 중원에서 강한 압박도 보여주면서 광주 전력의 핵심이 됐다.

이번 전북전에서 이한도와 알렉스 '센터백 듀오'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탄탄한 수비와 밸런스로 전복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광주의 역습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절실함으로 전주성을 찾는 광주가 승점을 안고 돌아올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양현중, 미국 프로야구 마이너리그서 5이닝 3실점

양현중(33)이 미국 프로야구 마이너리그에서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보이며 호투했다.

텍사스 레인저스 산하 라운드록 익스프레스의 양현중은 10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라운드록의 텔 다이아몬드에서 열린 휴스턴 에스트로스 산하 트리플A 팀 슈가랜드 스키타스와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5이닝 동안 3실점(1자책점) 5피안타(1홈런) 1볼넷 3탈삼진을 기록했다.

평균자책점은 5.97에서 5.48로 떨어졌다. 투구수는 79구를 기록했다.

출발은 깔끔했다. 1, 2회를 연속 삼자범퇴로 처리하며 무실점으로 막았다. 그러나 0-0으로 맞선 3회초 상대 선두 타자 마이클 파피어스키에게 좌월 솔로 홈런을 허용해 선취점을 내줬다.

4회초에 양현중은 다시 흔들렸지만 뛰어난 위기 관리 능력을 보였다. /연합뉴스